

**[P1-7]****임신 말기 모체 혈과 제대 혈의 철분 및 엽산영양상태의 상관성 및 임신의 결과**

임현숙\*, 이종임

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

철과 엽산은 조혈과정에 필요하며, 엽산은 또한 아미노산과 핵산대사에 작용하므로 조혈과 동화작용이 증가하는 임신기에는 이들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. 따라서 임신기간 중 모체의 철 결핍은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 출산율을 높이고, 엽산 결핍은 유산, 태반박리, 기형아 발생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137명의 정상 임신여성으로부터 분만직전의 모체 혈과 제대 혈을 채취하여 철분 및 엽산영양상태 지표의 상관성을 평가하고 임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. 이들 중 85.4%는 철분 및 엽산보충제를 섭취하였다. 모체 혈과 제대 혈간 이들 지표 중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것은 다음의 두 건이었다. 즉, 모체 혈의 적혈구수와 제대 혈청의 철 농도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, 모체 혈청의 sTfR 농도가 제대 혈의 Hct와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. 한편 모체 혈의 철영양상태 지표는 임신의 결과와 상당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는 바, 출생시 체중은 Hct, 혈청 철 및 페리틴 농도와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, 혈청 sTfR 농도 및 sTfR:ferritin 비와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, 출생 시 신장과 두위는 Hct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, sTfR:ferritin 비와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, 태반 무게는 Hb 농도 및 혈청 ferritin 농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, 신생아의 아프가지수는 Hb 농도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. 그러나 제대 혈의 철영양상태 지표는 혈청 ferritin 농도가 출생 시 신장과 양의 상관성을 보인 점 이외에 아무런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. 한편 모체 혈과 제대 혈의 엽산영양상태 지표는 임신의 결과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. 본 연구결과는 임신말기 모체 혈과 제대 혈의 철분영양상태 또는 엽산영양상태 간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다. 그러나 모체의 철영양상태가 태아성장 및 태반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. (Supported by a grant, HMP-00-B-22000-0158,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, Korea)